

+ 찬미 예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2021년 1월 8/9일 (토,일) 저스틴 신부님 강론의 한국어 번역을 올립니다.
은총 가득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 2021년의 최고의 은총

사람들이 여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하고있습니다. 아직 새해이고, 우리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깐요.

영적 성장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을
출발점으로 그 은혜를 사용하고 이전의 은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의 Examen prayer에, 그의 첫 번째 걸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걸음으로 아버지의 위로를 되돌아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달라고 부탁하는,
청원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2021년**의 가장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소서."

우리가 이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제1 독서에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이사40:1-2). 이사야에서 첫 39장은 회개하고 더 충실하기 위해 백성들을 도전 시키고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단어들로, 어조가 확연히 바뀌어 위로가 되고, 신학자들은 그것이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많은 교회 신부들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제들이 이런 영적 위기로 어떻게 그들의 신자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치명적인 병에서 기적으로 회복된 히즈키야 왕을 비난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Isaiah 40-66 in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1-2). 그러니 이미 정당한 벌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희망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도 잠시 시간을 내어 영적 가정 안에서 2021년의 은총에 대해 되짚어 보고 감사 드립니다. 두 주 전 일요일, 우리 학교가 내가 보아왔던 중 가장 일관되게 경건해 왔는지-특히 성찬식에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엄청난 징후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역 봉사를 해 온 여러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때문에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8월에 여러분에게 부르짖었을 때 수많은 분들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섬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분들이 교구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6명의 새 신자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결실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해 2월 낙태 사진을 공개하는 등 역대급으로 담대한 설교가 이어졌고, 이어 기숙학교에 대한 강론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중 몇몇은 시민권 상실에 대한 비디오에 반대하며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비록 망설이긴 했지만 미사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고해성사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는 **The Marriage Course** 과 **Journey Through Scripture**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재정적인 기부가 견고해져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42만 5천불이 Parish Centre**를 위해 모금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잊고 지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령의 위로에 응답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목 하십시오; 여러분은 더욱 충실하고 관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1) 2021년의 나에게 가장 깊은 영적 은총은 무엇이었나? 2) 2021년의 숨겨진 은총은 무엇이었나?**

덜 중요한 은총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감사하게도 **20파운드**를 감량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미덕과 영적 헌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더 깊은 은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또는 어머니와 친밀해졌나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루카 **3:15~16**) 세례자 요한은 선한 은혜에 현혹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을 부여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는 그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제안한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단지 준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는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께서 성령을, 즉 우리 안에 사실 하느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좋은 은혜를 진정한 축복을 위한 준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이 당신을 COVID로부터 치유했다면, 왜일까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왜일까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12월 30일, 페리 씨는 우리 학교 직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료 여러분, 크리스마스 옛셋째를 즐겁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휴일이 편안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미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메시아에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모든 변화로 학교에서의 첫 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이메일을 끝냅니다: "개인적으로, 제 딸 마리아는 12월 26일 조산하여 임마누엘 요한이라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는 몇 주 일찍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는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에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그 일로 매우 아프고 특히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가족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지지해 줄 성인이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선함을 봅니다. 에드와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에드는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마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사실을 근거로, 이제 임마누엘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페리씨는 이것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의 이 세례 축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세례의 선물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페리 씨는 이 선물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 깊고 숨겨진 은혜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누군가와 토론해 보십시오: 1) 2021년의 가장 깊은 영적 은총은 무엇이었습니까? 2) 2021년의 숨겨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에게 위안을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화에 힘쓰시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제를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